# 이혼가정 아동의 가족 관계 지각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 은 정(서울대학교 석사) · 이 순 형(서울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만 4~8세 학령 전기 및 초기 이혼가정 아동의 가족 관계 지각과 또래 관계가 아동의 연령과 성별, 주양육자의 성별 및 주양육자와 아동의 성별 일치 여부, 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혼가정 아동의 가족 관계 지각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령 전기 및 초기 일반가정 아동과 이혼가정 아동의 또래 관계에 대한 부모 이혼 여부와 가족 관계 지각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4~8세 이혼가정 아동 58명과 일반가정 아동 58명을 대상으로 두 개의 손인형을 사용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아동은 손인형들과 자신의 가족 및 또래 관계에 대하여 대화하였으며, 녹취된 아동의 답변은 코딩 규칙에 의해 부호화되어 SPSS Win 11.5 프로그램에서 t검증, 일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처리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 전기 및 초기 이혼가정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자신의 가족 및 또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즉 부모간, 부모자녀간 갈등 수준이 높다고 지각하였으며, 자신이 또래에게 덜 수용되며, 또래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표출한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학령 전기 및 초기 이혼가정 아동의 가족 및 또래 관계에 대한 지각은 아동의 연령 증가와 함께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주양육자의 성별에 영향을 받는다. 어머니와 사는 아동은 아버지와 사는 아동보다 주양육자와의 적대적 관계를 높게 지각하였으며, 어머니와 사는 여아는 아버지와 사는 남아보다 자신의 사회적 위축 행동을 높게 지각하였다.

셋째, 학령 전기 및 초기 이혼가정 아동의 또래 관계는 전반적으로 아동의 부모자녀간 관계 지각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나, 또래 관계의 하위 영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높은 부모간 갈등은 아동의 사회적 위축 행동에 영향을 주고, 주양육자와 아동의 적대적 관계는 아동의 또래수용도 및 비사교적 행동과 명백한 공격 및 적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령 전기 및 초기 이혼가정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겪는 전반적인 어려움은 부모 이혼보다, 부모 이혼 전후로 발생한 가족 관계 손상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래 관계에서 표출되는 또래에 대한 행동은 부모 이혼의 보다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으며, 특히 또래에 대한 명백한 공격 및 적대 행동은 부모 이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만 4~8세 학령 전기 및 초기 아동들이 부모 이혼의 명확한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부모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학령 전기 및 초기 이혼가정 아동이 겪는 또래 관계상의 어려움은 부모 이혼의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부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초래된 것

임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모간의 표면적인 갈등에 덜 노출되거나, 주양육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혼가정 아동의 또래 관계에 대한 적응에 도움이 되며, 특히 주양육자와 아동의 긍정적 관계 유지는 이혼으로 야기되는 적응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